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 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4. 11.

강 북 구 의 회

차 례

I. 연수개요	1
1. 배경, 목적, 추진방향 등	1
2. 연수단 구성	2
3. 연수일정	3
II. 방문국 기본 현황	4
1. 싱가포르	4
2. 말레이시아	8
III. 주요방문지 연수내용	12
1. 싱가포르 국회 방문	12
2. URA 도시개발공사	17
3. 말라카 - 항구도시	20
4. 최첨단 행정도시[푸트라자야시]	23
5. 기타 현장 시찰지	28
6. 특이 사항	32
7. 연수성과	35
IV. 맺음말	39
V. 참고자료	41

I. 연수개요

1 배경, 목적, 추진방향 등

가. 연수배경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우수정책을 펼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행정, 문화사업, 도시계획, 환경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연수를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 구현

나. 연수목적

여행국의 주요 우수정책 분야를 공무원의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적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다. 추진방향

연수목적에 부합하도록 단순 관광성 해외연수에서 벗어나 구정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방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

라. 연수기간 : 2014.11.14.(금) ~ 11.18(화) [4박5일간]

마. 참가인원 : 15명(의원 10명, 수행직원 5명)

바. 연수지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 연수단 구성

○ 단 장 : 의장 김동식

○ 운영총괄 : 의회운영위원장 이영심

※ 여행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작성

○ 연수자 및 연수추진분야

연번	직 위 (급)	성 명	연수추진분야	소속위원회
1	의 장	김 동 식	연수단 총괄	
2	부 의 장	장 동 우	지역 문화유적지·관광정책 연구	행정보건위원회
3	운영위원장	이 영 심	연수운영 총괄	복지건설위원회
4	복지건설위원장	김 도 연	도시환경정책(청결), 행정시설, 청렴실천 우수사례 연구	복지건설위원회
5	의 원	박 문 수	싱가포르 문화·사회 연구	복지건설위원회
6	의 원	이 백 균	지역 문화유적지·관광정책 연구	행정보건위원회
7	의 원	한 동 진	도시환경정책(청결), 행정시설, 청렴실천 우수사례 연구	복지건설위원회
8	의 원	김 영 준	지역 문화유적지·관광정책 연구	행정보건위원회
9	의 원	유 인 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시설 운영실태 연구	복지건설위원회
10	의 원	김 명 숙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시설 운영실태 연구	복지건설위원회
11	전문위원(과장)	김 흥 수	의전총괄, 행정사항	
12	의정팀장	김 병 윤	예산지출 및 정산관리, 연수진행	
13	홍보팀장	정 세 진	연수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14	행정 7급	이 종 천	연수보고서 작성, 기록관리, 자료수집	
15	시설 7급	장 인 완	방문 기념품, 물품 준비·관리, 사진촬영	

3

연수일정

일 자	방문국가	TRSFT	시간별	연 수 일 정	비 고
제1일 11/14 (금)	인 천	KE643	14:2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 석식 후 호텔휴식	
			19:55		
제2일 11/15 (토)	싱가포르	전용 버스	09:00	- 호텔조식 ▶ [공식일정] 싱가포르 국회 방문	
			10:00	▶ [공식일정] URA 도시개발공사 방문	
			15:00	▶ 문화유적·관광자원 견학 - 석식 후 호텔휴식	
				HITEL : 오키드	
제3일 11/16 (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전용 버스	10:00	▶ 호텔조식 후 체크아웃 ▶ 가든바이더베이 견학	
			14:00	▶ 말레이시아 말라카 방문	
			17:00	▶ 오랑아슬리 박물관 견학 - 석식 후 호텔휴식	
				HITEL : 에콰도리아 호텔	
제4일 11/17 (월)	말레이시아	전용 버스 KE672	10:00 14:00 16:00 23:59	▶ 호텔조식 후 체크아웃 ▶ [공식일정] 최첨단 행정도시(푸트라자야시)방문 ▶ 말레이시아의 광복을 기념한(메르데카 광장) ▶ 쿠알라룸푸 랜드마크(KSCC) 견학 ▶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기내 1박)	
제5일 11/18 (화)	인천		07:00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II. 방문국 기본현황

1 싱가포르



정식 국가 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The Republic of Singapore)이다.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로, 이후 영국의 해협식민지(The Straits Settlements)가 되었고 1959년 새 헌법에 따라 영국 연방의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되었다가 1965년 주권국가로서 분리 독립하였다.

가. 수도 및 민족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싱가포르 섬과 6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싱가포르(Singapore)이며 면적은 710km²로 서울시 면적 605.5km²와 비슷하다.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외국인 119만 명을 포함하여 총 499만 명이다. 민족 구성은 중국계 74.7%, 말레이계 13.6%, 인도계 8.9%, 기타 2.8%로 이루어져 있고, 200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종교 구성비는 불교·도교가 51%, 이슬람교 14.9%, 기독교 14.6%, 힌두교 4.0%이다.

나. 문화

싱가포르는 서양의 세계주의적인 문화의 포장 아래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의 전통이

공존하는 다문화도시국가이다. 싱가포르 각 민족의 무용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공연한다. 특히 중국무용에서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실험적 형태의 무용이 나타난다. 유명한 무용단체는 댄스 앙상블 싱가포르, 스리와나, 마리트알라야 체조협회 등이 있다. 싱가포르 최초의 프로 발레단인 싱가포르 댄스 시어터는 클래식 발레와 동서양의 요소가 혼합된 현대무용 레퍼토리로 유명하다. 이 발레단은 1980년대 워싱턴 발레단에 명성을 가져다준 고(故) 고추산(Goh Choo San)의 안무작업을 공연한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활동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른 예술분야보다 많은 비율의 음악가들을 육성시켜왔다. 싱가포르 출신 클래식 음악가는 해외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그들의 감성과 뛰어난 음악해석, 테크닉의 완성도로 존경받고 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서우이트킨(Seow Yit Kin)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시오우 리 친 (Siow Lee Chin)은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프로오페라단인 싱가포르 릴릭 시어터(Singapore Lyric Theatre)를 가지고 있으며 단원들은 주로 싱가포르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단원도 선발한다.

싱가포르의 교향악단 싱가포르교향악단(SSO)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악단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SSO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주자와 협연하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순회공연을 한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예술가로는 수채화가 옹킴셴(Ong Kim Seng), 조각가 응앵텡(Ng Eng Teng), 서예가 판쇼(Pan Show) 등이 있다.

1977년 이후 격년제로, 1999년 이후 해마다 국제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세계의 다양한 예술단체를 초청하고 있으며, 전국민이 각자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를 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이 선호하는 스포츠는 조깅, 수영, 축구 등이다.

각 종교별로 다양한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국가 전역의 행사는 매년 8월 9일 실시되는 독립일로서 각 집마다 국기와 싱가포르의 마스코트인 멀라이언이 그려진 깃발을 내건다.

다. 정치 및 사회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내각제로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의회는 2010년 현재 직선의원 84석, 지명의원 9석, 무선거구 1석 등 총 9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일은 독립기념일인 8월 9일이며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이다.

싱가포르는 중국인·말레이인·인도 파키스탄인·유럽계인 등이 저마다 다른 언어·풍속·습관·문화·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문화가 섞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종에 따라 직업도 다른데 대부분 중국인은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상업에 종사하고, 말레이인은 하급 공무원과 하급노동자로 일하며, 인도인은 공무원이거나 택시기사, 청소부 등이 많다. 이러한 복합사회는 인종간의 대립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중국인 사이에는 푸젠[福建]·광둥[廣東]·커자[客家]·차오저우[潮州]·하이난[海南] 등 출신지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결합관계인 방(幫)이 있는데, 상업 활동은 이 방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다른 방과의 관계는 희박하다. 이처럼 인종적으로 분단되는 데다가 방 등으로 다시 분단되기 때문에 계층 문화가 표면화되지는 않는다.

학제는 초등 6년, 중등 4년, 대학전교육 2~3년, 대학 3년제로 모든 학생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언어교육을 중시하며 각 인종의 고유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 정책을 시행하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본토 복귀 이후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표준어 배우기를 권장한다. 대학교육은 탈아시아를 선언하며 장학금 수혜와 같은 각종 혜택을 주면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우 세계 20 위권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라. 기후

싱가포르에서는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Tamil) 등의 언어를 사용한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연중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 11월~1월 사이는 몬순 시기로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2°C~3°C 정도 낮아진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31.0°C, 최저기온은 24.1°C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346mm이며 평균 습도가 오후 2시 기준으로 84.2%이다.

마. 경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약어)은 2014년 IMF 기준 3,017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56,113달러이다.

싱가폴과 한국의 경제경합도는 매우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개방국이지만 싱가폴은 중계무역 및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관광 및 중계무역으로 싱가폴의 경제가 작동할 만큼 매우 서비스 위주의 국가경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75.8.8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 설치(현 서정하 대사 '13.6 부임)
-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2013, 한국 기준)
 - 교역액 : 326억 불
 - 수 출 : 223억 불(반도체,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부품, 무선통신기기)
 - 수 입 : 103억 불(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투자 현황(2013 누계)
 - 對싱가포르: 66억불
 - 싱측 對한: 91억불
- 동포현황(2013) : 약 25,000명
- 인적교류(2013)
 - 싱가포르 방문 한국인 : 약44.5만 명
 - 한국 방문 싱가포르인 : 약17.4만 명

2 말레이시아



정식 국가명칭은 말레이시아(Malaysia)이며,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선임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양원제,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이다.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이 세워졌고 이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 자치령과 영국령에 있던 보르네오가 합쳐져 오늘날의 말레이시아가 탄생했다. 1965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가 분리 독립하였는데, 이날이 말레이시아의 국경일이다.

가. 수도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약 16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이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한 도심생활권역 인구는 약 450만 명이다. 말레이시아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인 32만 9847km²이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수는 2825만 명이다.

나. 민족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 60%, 중국계 25%, 인도계 7%, 기타 8%의 분포를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는 말레이어(바하사 말레이시아)지만 중국계와 인도계는 각자

고유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영어가 널리 통용된다.

말레이시아 국민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의 영향을 받아 매우 독특하고 다양하다. 상대 민족의 신념, 믿음, 전통에 대한 조화, 협력, 참을성이 말레이시아 문화의 독특한 융화를 이끌어냈다. 말레이시아 문화에서 문학과 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 문화

말레이시아 춤은 말레이시아 문화의 여러 요소에 강하게 널리 영향을 받았으며, 촛불춤(Candle Dance)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만 쟁반에 받쳐진 촛불을 각 손에 들고 춤을 추는데 무용수의 동작으로 우아한 곡선과 호가 그려진다.

조갯(joget)이라는 빠른 템포의 춤도 대중적이다. 말라카가 포르투갈에 함락된 이후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춤으로 몇 쌍의 커플들이 나와서 빠른 비트의 움직임에 단체 무를 보여주는 다소 이색적 춤이다. 사라와크에는 다툰 주루드(datun julud)라는 전통 춤이 있는데 손자를 얻은 왕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흥미로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종교·민족에서 비롯된 엄청난 수의 전통축제이다. 이슬람의 축제인 라마단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에 속한다. 중국 축제인 신년행사는 거리의 오페라인 사자춤에 의해 절정에 이르며 여러 문화행사 중 가장 화려하고 요란한 행사이다.

전통음악은 가믈란(gamelan)이라는 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되는 웅장한 협주이다. 러바나 우비(rebana ubi)라는 큰 드럼은 악기로서뿐만 아니라 주요 통신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매년 5월~6월 끝판판주에서 러바나 우비 축제가 열린다.

인도계 사람들은 성스러운 사원춤으로 유명하며, 타이푸삼(Thaipusam)의 기간 중에 수천 명의 신도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몸을 찌르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사바(Sabah)와 사라와크 등의 토착부족은 쌀로 만든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추수감사 축제를 한다. 축제나 결혼식에서는 4행시인 《판투니스》를 낭송하거나 노래로 부른다

라. 정치 및 사회

1957년의 말라야 연방 성립 때까지 술탄을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교적 위계제도(位階制度)는 말레이인 사회에만 존재하였으나, 그해에 제정된 ‘독립헌법’에 의해서 중국인·인도

인도 국적 취득의 조건으로서 술탄의 충성스런 신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조건은 1963년 말레이시아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중국인·인도인으로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적다. 이들의 일상회화는 중국어·타밀어이며, 각 인종간의 통혼도 별로 예가 없다. 중국인의 생활에서는 동향(同鄉) 조직인 방(幫)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푸젠방[福建幫]·광둥방[廣東幫]이 최대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 동업조직적 성격도 겸하며, 푸젠방의 경우 고무농장 경영자가 많다. 말레이시아에는 불교·힌두교·이슬람교가 잇따라 전해졌기 때문에, 현재에도 말레이반도 북부에는 불교 사원·힌두교 사원이 있다.

오래된 이슬람교 사원은 정부에서 관리하며, 새로운 이슬람교 사원이 국비로 건립되고 있다. 교육은 초등학교(6년), 중학교(초급 3년, 상급 2년),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의무교육은 아니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초급과정 3년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교·중학교에는 말레이어 학교 외에 영어·중국어·타밀어 학교가 있으나, 1969년 이래 말레이어 교육이 강력히 추진되어, 현재는 어학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수업은 말레이어로 행하여지고 있다.

대학교육은 초급대학·교육대는 3년, 대학교는 4년이며, 대학의 수업도 1981년까지 완전히 말레이어화되었다. 대학은 말라야대학교(1962), 이과대학(1969), 국민대학(1970), 농업대학(1971), 공과대학(1972) 등 국립대 12개교, 사립대학 7개교가 있다. 인구에 비해 대학수가 적고, 말레이인과 비말레이인 간의 대학 입학정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문맹률은 11% 수준이다.

마. 기후

말레이시아의 시차는 한국보다 한 시간 늦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이고, 연평균 기온은 32℃, 연평균 강우량은 2,410mm이다.

바. 경제

말레이시아 계획(2010년~2015년)의 목표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6%를 실현하고, 2015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약어) 1만 2140달러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의 5.3% 수준에서 2015년에는 3.0%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계획기간 중 민간투자 비율은 연평균 12.8%의 성장을 이루고(신규투자 연평균 1150억 말레이시아 링깃), 고용은 연평균 2.4%의 증가를 실현하여 14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4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약어)은 3,369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1,062 달러이다.

사.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0.2.23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 상주대사관 설치(62.5), (현 조병제 대사 13.7 부임)
- 수출입동향 및 주요품목(2013)
 - 교역액 : 196.8억불
 - 수출 : 85.9억 불(컴퓨터, 반도체, 선박, 철강관, 자동차)
 - 수입 : 110.9억 불(LNG, 원유, 반도체 부품, 목재류)
- 양국간 투자현황(2013년 신고기준/누계)
 - 대말 투자 : 4.76억 불 / 108.6억 불
 - 대한 투자 : 1.1억 불 / 75.1억 불
- 인적교류(2013)
 - 방말 한국인 : 274,622명
 - 방한 말레이시아인 : 207,727명
- 교민(2013) : 약 15,000명

Ⅲ. 주요 방문 기관 시찰 내용

1 싱가포르 국회 방문

1). 방문개요

- 일 자 : 2014.11.15. 09:00 ~
- 주요내용
 - 가. 싱가포르 정치제도, 현황 등
 - 나. 싱가포르 국회의원의 선출 방법 등
 - 다. 싱가포르 반부패 성공요인과 사회발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 등

2). 주요 내용

가. 싱가포르 정치제도, 현황 등

싱가포르는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1991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했으며 의회 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고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한다

싱가포르에서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은 리완유(Lee Kuan Yew, 李光耀) 전 총리가 “인민행동당은 곧 정부이고, 정부는 곧 싱가포르”라고 언급할 정도로 1959년 이래 의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민행동당에 대응할 만한 정치적인 대안 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인민행동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주택, 취업, 사회복지와 같은 일반 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적기에 파악해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어 전폭적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인민행동당이 장기 집권을 함으로써 싱가포르는 과도한 정치 과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이라는 단점을 해소하고 있다.

나. 싱가포르 국회의원의 선출 방법 등

싱가포르의 의회는 단원제이며 보통,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84명의 의원과 9명의 지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구는 1명을 선출하는 단일 선거구와 3~6명을 선출하는 GRC(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ies)로 구분되는데, 12대 국회부터 단일 선거구에서 12명, GRC에서 75명이 선출되어 총 87명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야당 입후보자로 9명 이상의 무선거구 의원(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을 둔다.

의원의 임기는 원 구성일로부터 5년인데 의회 해산 시 임기가 종료되며, 총선은 의회 해산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의원 피선거 자격은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21세 이상의 사람으로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의회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여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은 1965년 독립이래 정권을 야당에 넘겨준 적이 없으며, 가장 최근 실시된 2011년 5월 7일 총선에서도 전체 87명의 의석 중 81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였다.

다. 싱가포르 반부패 성공요인과 사회발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

반세기 전에만 해도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만연했었다. 그 요인은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인플레이션, 부적절한 감독, 낮은 검거율을 들 수 있었다. 195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편 강취 스캔들에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명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범죄수사국 반부패課를 대신할 독립반부패기관을 설립한 것이 탐오조사국의 모태이다.

1959년 리관유 수상이 취임하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방·수사·억지 수단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하고, 이듬해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탐오조사국에 체포·압수수색·은행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수입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패의 증거로 간주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1959년 8명뿐이었던 인력은 2011년 138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예산은 1959년 약 9억원에서 2011년 30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허점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1966년에는 수뢰 의사가 있었으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유죄 판결할 수 있게 하였고, 재외공관 또는 외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국민의 부패도 처벌하게 하고, 1989년 들어서는 부패범죄 벌금을 10배 인상하고, 사망한 부패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부패에 해당하면 대형이건 소형이건, 공공 및 민간 부문, 증뢰자 및 수뢰자, 부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기타 범죄까지 취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법집행에 나섰다. 더불어 부패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부패 이익을 환수한 후에도 벌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부패예방 활동에 힘을 쏟아서, 부패가 발생한 정부기관의 행정절차와 관행을 검토하여 부패관련 허점과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 활동과 학생·교사·공무원·주요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하였다.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요인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천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남한의 14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국민소득(1인당 GDP 59,900달러), 적은 인구(470만명)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인다.



[2014. 11. 15 국회방문]

※ 무선거구의원제도

싱가폴의 야당은 정말 약하다. 한 정당만 장기집권을 하다보니 국민들이 야당을 원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권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래서 싱가포르 선거에는 생소한 제도들이 있는데, 먼저 무선거구의원제(NCMP; 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가 있다. 198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야당 후보 중 15%이상 득표한 최다 득표자 3명에게 의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무선거구 의원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리완유 총리가 내세웠던 명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당의 역할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을 교육시킨다. 둘째, "국회의원과 장관들의 토론 기술을 연마"시킨다. 셋째, 부정부패와 정실주의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공개 되도록 한다.

명분도 재미있고 제도의 내용도 재미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당선된 무선거구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투표, 예산안 관련 일부 법안, 정부 불신임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2급의원일 수밖에 없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5% 이상 득표할 수 있는 야당 정치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의 장기집권

싱가폴은 1819년 영국의 스탬포드 래플즈(Stamford Raffles) 경이 건설하였는데, 1824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1942년에는 일본에 점령되었다가 일본 패망 후 1946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후 싱가포르 1955년의 랜들 헌법(Randel Constitution)에 따라 내각제 정부가 되었고, 정원 32명의 입법의회가 신설되었다. 1959년 선거에서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승리하면서 정부를 구성하여 영국으로부터 자치정부 지위를 승인받았고, 1963년 독립한다. 이후 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지명의원 등의 예외 있음).

1959년 첫 선거를 치렀으니, 우리나라보다는 10년 쯤 늦게 민주주의를 시작한 셈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인민행동당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수로 집권하고 있다. 총리도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리완유(Lee Kuan Yew)가 1959년부터 1990년까지 41년간, 그 후로는 고촉동(Goh Chok Dong)이 2004년까지 14년간 총리를 지냈다. 현재 총리는 리완유의 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 현재 의회에는 2006년 선거 결과로써 총 의석수 84석 중 82석을 인민행동당이 장악하고 있다

◎ 방문소감 및 우리구 적용방안

가. 방문소감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허점을 차단하는 노력,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천의 중요성, 학생·교사·공무원·주요 민간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부패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나. 우리구 적용방안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

국제투명성 기구에 의하면 201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이라 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며, 특히 정당과 의회를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하였다.

우리구는 지속가능한 청렴도 최상위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재 강북구의회 행동강령은 추상적, 선언적 규정으로 행위기준으로서는 미흡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 의원 행위기준이 포함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검토하여 우리구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 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청결한 도시 거리] - 노점상이 없음.



2 URA 도시개발공사

1). 방문개요

- 일 자 : 2014.11.15. 10:00 ~
- 시 설 명 :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 주요 내용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의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싱가포르는 독립직후 60년대의 혼란기와 70년의 고도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보다 성숙한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90년대 이후 싱가포르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체질개선을 통해 세계 제일의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여 21세기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바로 계획 도시 국가라는 근본적인 공간적 활용에 따른 경쟁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높은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이 된 효율적인 국가경영의 원천이 잘 발달된 국토공간체계에 있음을 주목하고 싱가포르 도시계획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로부터 한국도시계획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우선 싱가포르 도시계획의 주요 특성을 분석해 보겠다.

첫째, 싱가포르 도시디자인에서는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가장 큰 계획인 콘셉트 플랜(Concept Plan)에서부터 주거, 상업, 여가, 업무 등 하위 용도에 대한 개략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으며, 둘째, 싱가포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향과 목표, 세부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싱가포르 도시 디자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도시 재개발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URA)의 존재이다, 도시 재개발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URA)은 지구별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에 개관한 도시개발공사 산하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Singapore City Gallery)는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경관환경 디자인계획을 일반인이 알기쉽게 설명해 놓은 전시관이다. 즉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이 시작된 계기, 도시계획 과정, 계획 전 과 후의 싱가포르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있다. 이 도시의 옛 50년의 변화상과

또 앞으로 50년의 미래상을 모두어 볼 수 있으며, 십수 미터 짜리 싱가포르 축소 모형이 방문객들을 먼저 맞이한다. 이곳에는 크게 세 개의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 섬 전체의 모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시 구역의 모형이고, 마지막은 싱가포르의 핵심 지역만을 확대해 보여주는 도심지 모형이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모형에 구현해야 했기에, 그 스케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였다.

◎ 우리구 적용방안

오늘날의 도시는 과밀, 혼잡한 개발과 교통 서비스 및 환경의 질 낙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대두되어 실제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전면적인 재개발과 같이 지역의 고유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오히려 교통 문제, 도심부 쇠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팽창에 따라 발생한 도심의 저개발 지역이 도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강북구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꾀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공급함으로써 우리구의 도시경쟁력을 극대화 하는데 싱가포르의 거시적인 도시계획을 모범사례로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공 공간의 개발, 공공시각 매체의 제정에 있어 그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지역 문화적 요소를 반영해 이용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공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청 방문]



[도시개발 모형]



3 말레이시아 - 말라카

1). 방문개요

- 일 자 : 2014.11.16. 14:00 ~
- 시 설 명 : 말라카, 첩훈사원

2). 주요 내용

말레이반도의 남서부, 말라카해협에 면한다. 말라카주(州)의 주도(州都)로 말라카강(江) 어귀에 있으며 강의 좌안에 세인트폴 언덕이 솟아 있다. 말라카해협 해상교통상 요충이며, 동남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다.

원래는 한촌에 불과하였으나 14세기에 수마트라섬에서 온 파라메스바라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창하였다. 1511년 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 최초의 유럽 식민지로 만들어 향료 무역의 독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기지로 삼았다. 그 후 1641년 네덜란드가 빼앗아 해협을 지배하였고, 1824년 영국의 소유가 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쟁탈사는 결과적으로 말라카에 많은 사적을 남겼는데, 세인트폴 언덕의 유적을 비롯하여 세인트존 언덕의 성채가 그것이며, 이밖에 박물관도 있다. 근세에 와서는 화교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싱가포르에 밀려 연안무역항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과 같이 다민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를 풍미했던 해상 실크로드의 동방 거점 역할,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라는 지리적 위치 덕분이다. 뱃사람과 상인들의 문화교차점으로써 동남아에서 가장 화려하게 번성했던 무역 도시 였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수심이 낮아지면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말이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고무와 주석은 현재까지도 풍부한 대표적 자원, 약육강식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한 채 두 보물은 제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를 탐한 서구 열강들의 지배로 이어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까지 포르투갈을 시초로 네덜란드, 영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결코 다인종 국가로 변화한 것이다.

◎ 우리구 적용방안

이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말라카는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된 곳, 도시전체가 2008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만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여 세계 배낭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방문한 사람들은 세계의 인종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풍경에 놀라고 한탄다. 도시 곳곳의 회교 교당, 사원, 교회가 제각각의 모습으로 공존하는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게 비쳐졌다.

우리 강북구도 근현대사 박물관 설립계획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옛날에 살아왔던 추억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재미있는 박물관, 모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어 다른곳에서 느낄수 있는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갈등의 배제되는 박물관, 헌정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한 4·19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그 의의를 규명하고, 이에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하는 박물관 등 역사·문화 관광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겠다.

[말라카 그리스도 교회]



[말라카 세인트폴 교회 - 산티아고요새]



[청훈텡 사원]



4 말레이시아 - 최첨단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시

1). 방문개요

- 일 자 : 2014.11.17. 10:00 ~
- 시 설 명 : 최첨단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시)

2). 주요 내용

가. 도시개발 추진배경

성장정책의 결실을 바탕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마하티르총리는 집권10년째인 1991년 ‘비전 2010’이라는 30년 장기계획을 국민들에게 발표

‘비전 2020’계획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벨류 체인(Value Chain)을 현재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

‘비전 2020’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으로서 말레이시아정부는 칼라룸푸르국제공항(KLCC), 칼라룸푸르시티센터(KLCC), 멀티미디어 대회랑 지역(MSC:Multimedia Super Corridor), 말레이-태국 연육교공사, 말레이-싱가포르 제2대교 가설공사 등과 같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계획을 추진으로 신행정도시의 필요성 대두

푸트라자야의 건설은 한계에 다다른 쿠알라룸푸르에서의 기반시설 부담을 경감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정부청사 사무실의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부문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행정센터의 구축을 위해 시작.

나. 개발과정

- 1993. :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이전 결정
- 1994. : 'Garden City' 컨셉 채택
- 1995. : 푸트라자야 마스터플랜 승인(내각)

- 1996. : 마스터플랜 재검토(자연지형보존 및 토공의 최소화)
- 1996. 10. : 착공
- 2012. : 현재 24개 연방 행정부처 중 17개 부처 이전 완료

다. 푸트라자야 선정 사유

- 교통네트워크로부터 접근 용이성
- 토지수용 및 기반시설 조성비 저렴
- 인근 사이버자야와의 접근성 및 연계성 요인
- 주변 식물, 나무 등이 적합히 배치되어 있음
- 기존 인구가 적음

라. 신도시 개발 방향 및 개발 목표

행정센터로 건설되고 있는 푸트라자야가 추구하는 도시비전은 전원도시(City in a Garden)와 첨단정보도시(Intelligent City)로 함축됨.

○ 전원도시(City in a Garden)

전원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전체 도시면적의 39%를 녹지공간으로 배치, 식물원, 호수,수로, 습지 등으로 이루어진 오픈스페이스공간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기여.

○ 첨단정보도시(Intelligent City)

푸트라자야가 도시비전으로 추구하는 첨단 정보도시의 구현형태는 제품과 서비스가 누구나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전자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 같은 편리한 장소에서 세금납부, 은행업무, 쇼핑, 티켓구매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마. 부문별 계획

○ 주거부문 계획

주거지역은 전체 개발면적 중 25.5%인 2,888에이커(ac)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전체 공급되는 가구 중 약 52%가 공무원들에게 공급되는 것.

푸트라자야는 전체가 다양한 규모의 15개 구역으로 세분화되며 이중 12개 구역은 주거 용도위주로 개발되고 있음. 각 구역들은 구역의 특색을 고려하고 독특한 경관을 창출 하면서 각 구역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또한, 각 구역에는 유치원,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보건시설들이 배치되어 구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초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상업부문계획

다양한 고밀도 건축물들이 건설, 단,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역전체면적의 45%를 소규모공원(Pocket Park)을 포함한 녹지공간으로 배치함.

○ 교통계획

푸트라자야의 교통계획은 차량의 통행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위주의 중앙부 접근을 구성하고 있음.

즉, 중심업무 구역으로 접근하는 호수에 조성된 다리들과 중심부를 관통하는 대로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Park and Ride 및 기타 다양한 대중교통 유도수단을 강구하였음.

○ 공원·녹지·하천계획

푸트라자야의 공원 및 녹지, 하천계획의 개념은 정원도시임,

- 전체 개발면적 중 37.6%는 개방된 공간으로 보존되며, 이들 지역은 도시형공원, 시립공원, 습지, 완충지역, 수변공원 등으로 활용됨

수변지역의 대부분은 호수와 습지로 구성

- 호수개발 목적 : 레크레이션, 수상스포츠, 수상교통 등

- 습지의 역할 : 200ha에 달하는 인공습지는 호수로 유입되는 물을 자연적으로 정화

시켜주는 거름막 역할

○ 환경보전 및 에너지 계획

계획초기부터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특히 푸트라자야의 주된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호수와 습지에 이러한 계획이 집중되었으며, 생태적 연속성과 당위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전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의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자연경관의 활용과 관련된 계획시설로는 38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와 수상 레저시설들, 그리고 복합용도의 수변 상업시설 등이 있다.

◎ 우리구 적용방안

국내에서 푸트라자야 대한 정보는 노무현 정부가 방문한 뒤 행정수도인 세종시 건설에 참고를 했다는 정도였으나, 현장방문을 통해 도시의 거대한 규모에 비해 엄청난 녹지 공간 정부청사들은 예술작품같은 아름다움과 친숙함을 표현하고 있어 어찌 보면 공원에 가까움,

강북구의 관점에서는 서울시의 숙원 과제인 문화생활, 교육, 교통 등 강남·강북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북구내 북한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과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푸트라자야 주요 시설물]



[푸트라자야 관리청]



[수상관저 및 멜라와티 궁전]



[이슬람사원 관계자 브리핑]

5 기타 현장 시찰지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견학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싱가포르의 남쪽 마리나 베이 간척지 위에 세워진, 일종의 세계 최대 공원 프로젝트이다. 그래서일까, 감탄을 자아내는 원예와 정원 조성 기법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싱가포르의 환경에서는 자랄 수 없는 식물이지만, 지능형 환경기반시설을 통해 멸종위기의 식물들까지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한 식물 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부지는 무려 30만평에 달하는데, 그 규모나 인프라 차원에서는 '가든'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대형 식물 테마파크'가 적당할 듯하다.



○. 오랑아슬리 박물관 견학

오랑아슬리란? 말레이어로 Orang(사람) Asli(본래의)란 뜻으로 원래 말레이시아땅에 살았던 원주민을 뜻하는 말로 태국에서 내려오거나 중국에서 내려온 중국인이 아닌 말레이시아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랑아슬리들이 예전에 살았던 박물관을 가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크기의 박물관이었지만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이나 생활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랑아슬리 전경]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



○. 말레이시아의 광복을 기념한 [메르데카 광장]

메르데카 광장은 1957년 8월, 영국 국기를 철거하고 말레이시아 국기를 게양하면서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약 2만4천평의 넓은 잔디광장으로 한쪽에 분수대가 있는 정원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기 게양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것은 높이 1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게양대로 인정받고 있으며, 해마다 독립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꽃으로 꾸며진 8만 2,000㎡에 이르는 거대한 부지에는 각종 음식점과 놀이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장 모퉁이에는 1897년에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분수도 있다. 메르데카 광장 주변으로 구시청 건물과 국립역사 박물관,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이 자리하고 있다.

[메르데카 독립광장]



○.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 [KLCC] 견학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중심에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있습니다. 약어로 KLCC(Kuala Lumpur City Centre)라고 불리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1992년에 공사를 시작해 1999년에 오픈을 한 88층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연면적 약 6만 5728평에 지하 6층, 지상 88층, 전체높이 452m로 1974년 완공된 미국 시카고의 윌리스타워(Willis Tower)보다 10m가 높다. 소유주는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와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KLCC)로, 타워 이름 역시 이석유회사 이름에서 딴 것이다. 지상 175m 높이의 41층과 42층에 걸쳐 두 빌딩 사이를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해 양쪽 건물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다. 또 88층부터 4개층이 하나의 층을 이루는 증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층까지 합하면 92층이 된다. 외형은 언뜻 보면 금속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외벽만을 스테인리스강과 유리로 장식했을 뿐이다. 한국의 삼성건설(주)와 극동건설(주) 컨소시엄이 한쪽타워를 시공하였다.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 타워]



○. 주룽새 공원 견학

주룽새 공원은 원래는 공업단지였던 주룽 타운이 전 세계의 380여종, 5천여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새와 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아이들의 학습과 여행을 동시에 경험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주룽새 입구 이정표]



[새 공연]



6 특이사항

□ 싱가포르

- . 높이 표시로 도로위 안전보행 강조 - 김동식의장, 유인애 의원



- . 작은 공사도 안전 가림막 설치 (장동우 부의장)



- . 공사장 바로 옆에 소화기 비치 (이영심 운영위원장)



○. 가로수 물주는 데도 안전표시
(김도연 복지건설위원장)



○. 재래시장내 음식점에 개수대 설치
(김명숙 의원)



□ 말레이시아

○.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등
(박문수 의원)



○. 경찰관의 주·정차 단속
(이백균 의원)



○. 다용도 지팡이 - 펼치면 의자
(한동진 의원)



○. 눈에 잘 띄는 화장실 표시
(김영준 의원)



□ 초·중·고 교육분야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변화, 중학생 자유학기제 도입, 자치구별 직업진로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진로선택 1일 명예교사 활동에 즈음하여 연수국가의 초·중등 교육정책 파악과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해보고자 한다.

1. 싱가포르의 교육분야에 대한 성과를 정리

싱가폴은 인구 500만명의 작은 도시국가인데 방문 첫 인상부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다민족 국가이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잘 협조하며 살아가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싱가포르의 학교는 크게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로 나뉘고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는 입학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학비가 비싼 반면 공립학교는 정부의 체계적 교육 정책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으로 명문 대학으로의 높은 진학률을 자랑하고 학비가 저렴하나 입학이 어렵다. 싱가포르 교육의 특징은 모든 국민이 2개 국어 사용을 하고, 실용주의 교육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능력별 교육을 하는 것이다. 초등교육은 4년의 기초 교육 단계와 학생 개인의 적성, 소질, 능력, 재능에 기초한 2년의 적응 교육 단계로 구성되며,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학습능력과 적성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세 가지 과정(특별과정, 고속과정, 보통과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4년 또는 5년 과정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특별과정과 고속과정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며, 보통과정 학생들은 4년 과정후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보통과정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1년후 중학교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를보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거의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가 선택되어 자기가 가야할 목표가 있는 교육이 특이하다.

2. 말레이시아 교육분야에 대한 성과를 정리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동남아의 후진국이 아니었다. 풍부한 자원에다 이슬람국가로서 중국계, 인도계 등 다인종, 다문화를 조화롭게 소화해가고 있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게 한다. 말레이시아의 교육은 영국식 교육제도를 근간으로 미국식 교육 및 이슬람문화까지 가미된 독특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외국인 등이 함께 사는 다인종 국가의 특성대로 교육의 형태와

질에 있어서도 실로 다양했다. 독립이후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모든 공공 교육의 공용어를 말레이어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과 언어를 함께 인정하는 교육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제도는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6년이며 대부분 공립학교는 2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은 6월과 11월에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900만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 주석과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70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땅이다. 1인당 GNP는 우리나라 GNP의 반인 만달러 남짓하지만 길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다민족 다문화국가답게 다양하고, 활기와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았다. 특히 히잡은 쓴 밝고명랑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과외나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학생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부하는데도 별다른 문제없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고, 학생 중심의 토론식 수업방식이 돋보인다. 우리나라 많은 학부모들이 외국유학을 시키는데 등골이 흰다고 하고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내에 국제학교를 설립 지원하면 막대한 국고도 덜 낭비되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덜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교육미래, 그 것은 아 도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안방 에서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아닌가 싶다.

□ 환경 및 복지분야

갈수록 복지·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싱가포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시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의 흡연, 껌을 씹다가 바닥에 버리는 경우 등 과태료가 최하 45만원이다. 우리구 담배꽂초 버리는 행위 적발시 5만원 과태료의 몇배이다. 껌을 씹다가 버리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제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구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면 우선 충분한 계몽시간을 거쳐 필요하다면 과태료 증액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 관련조례 및 관련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물관리 우수 사례 및 아동복지 정책과 운영 실태를 시찰하고 자료를 수집 하려고 노력하였다. 여행 일정이 주말이어서 관계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지책자와 가이드 설명을 통해 싱가포르의 환경분야, 말레이시아는 복지분야를 연수하였고 연수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1. 싱가포르의 환경분야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서울보다 조금 면적을 가진 인구 500만명의 도시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환경정책 방향이 뚜렷했으며 1968년부터 시작된 'Clean and Green Singapore'운동에서도 이미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나라로서

싱가폴의 녹색산업은 수처리 산업 및 폐기물 처리가 대표적이며, 최근 지속발전가능 도시 정책 일환으로 그린빌딩산업 육성에 집중하고있다.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중 수처리 기술을 지정해 중동 등 해외에서 대규모 수처리 프로젝트 수주하는 산업구조이며, 연평균 17억 달러규모의 경제 기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URA 도시개발 공사를 방문했던 싱가포르 전역 모형과 함께 추구하는 정책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싱가포르 전 지역에서 발생한 오폐수와 빗물 등이 한 곳에 모여 깨끗한물, 이른바 뉴워터로 재탄생 시키는 정책으로, 뉴워터는 한 방울의 물도 버리지 않고, 100%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전체 물 수요량의 30%를 공급하는 싱가포르 물 산업의 상징이다. '뉴워터'란 '새로 태어난 물'이란 뜻으로, 한 번 쓰고 버린 하수를 정화해 재활용한 물이다. 싱가포르가 하수를 재활용하는 이유는 자국에 수원이 되는 강이 없기 때문에 싱가폴은 예로부터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해왔지만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에 속한다. 결국 싱가폴은 더럽고 냄새나는 하수도 물을 깨끗이 정수해 먹는 물로 만들기 위해 이 때 도입한 방식이 역삼투압 정수장치이다.

우리나라 가정에 흔히 있는 정수기를 전국민이 쓸 수 있는 대용량 정수장치로 만든 것으로, 가정용, 혹은 업소용으로 흔히 쓰는 소형정수기와 큰 차이가 없다. 물부족 국가인 싱가포르가 원천수를 확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재생수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물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수생산 기술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 플랜은 상수원 수질과 상관없이 수돗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20~30년 후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 플랜은 상수원 수질과 상관없이 수돗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수질 오염과 잦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 플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말레이시아의 복지분야에 대한 성과를 정리

말레이시아는 생각보다 치안도 잘되어 있고 볼거리도 많았으며 다인종, 다문화국가라는 것을 빼고 큰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물가 수준은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비슷했다. 말레이시아의 아동복지시설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주말인 관계로 연결이 어려워 푸트라자야 행정관으로부터 말레이시아의 아동복지시설인 Rumah Amal Cahaya Tengku Ampuan Rahimah (RACTAR; 일명 렉타)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이곳은 보살펴줄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말레이시아 각지에서 부모,

친지 또는 이웃들에게서 보내진 여자 아이들이 지내는 쉼터(시설)인데 총 60명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으며 나이가 제일 어린 6세 어린이부터 27세 성인 여성까지 지금 이 시설에 살고있으며, 보통 17살이 지나면서 재봉틀, 바느질 등 여러 기술들을 가르쳐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다. 무조건 20살이넘는다고 다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굳이 갈 곳이 없다면 언제까지고 시설에 머무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지원형태와 별반 다르게 없어 큰 도움은 되지않았다. 다만 인건비가 낮은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다인종, 다문화가국민들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할까? 그래도 나름 우리정부보다 우수한 복지정책이 있었다.

첫째, 의료비에 알아보면 말레이시아의 모든 국민들은 의료비가 매우 저렴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 가입비 1링깃에 더 이상의 의료보험비 없이 국립병원을 다닐 경우 병원비가 무료이다.

둘째, 교육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다.

셋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면 장기 임대 주택 무상지급으로 월 100링깃 이하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

넷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부 또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자금의 경우 국민계층에 따라 이자가 없거나 최저 이자만 지불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30년 상환이다. 이는 다인종 국가의 특징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정운영 모토인 '통합'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모든 정책내용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의료비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은 병원비 차이가크다. 그러나, 의료수준은 비슷하다. 모든 의사들이 국립병원에서 일정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국립병원에서 동등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더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 또한, 주택이나 대출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부담이 없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집을 사느라 보통 20년이 걸리고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다. 말레이시아는 장기 주택 무상 임대 및 싼 임대료, 부담없는 이자는 삶의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임에 분명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분명히 본 받아야 할점은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수처리 기술과 말레이시아의 의료, 주택 및 대출정책 등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검토 반영하여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

IV. 맺음말

1 공무연수를 마치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유럽열강에 의한 식민지배의 역사를 거쳐 여러 인종, 종교, 언어를 사용하는 이질적인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글로벌경제의 침체기속에서도 강력한 정부의 주도로 꾸준히 경제발전을 이룩한 근현대사를 되돌아 보게 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외적인 상황과 문제점, 미래에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환경, 경제성장, 사회통합 등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방문국 서로에게 경험과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을 공유할만한 나라였다.

말레이시아는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이 추진하고 있었으며, 미래에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서울과 면적이 비슷한 도시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이 넘는 세계무역의 중심지,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서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진, 가장 모범적인 국가모델이자 경제적인 우등생으로 동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동·서양이 조화를 이룬 사회, 하나의 정원 같은 도시였다.

자연환경이 아닌 도시 계획 및 현대적 건물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음을 느끼면서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실제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3박5일 일정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 연수를 무사히 마쳤다.

무엇보다도 금번 연수는 당초 계획하였던 연수 목적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연수 기간 중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수에 참가한 의원 모두가 글로벌 마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현지 방문 및 정책추진의 현장 체험한 의견을 종합하여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찬성하고 연수성과의 공유와 방문국의 우수사례를 우리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북

구의회 의원들의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결과 보고서를 마감하고자 한다.

끝으로 알찬 연수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심사위원, 연구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여러 의원님, 의원수행에 열성을 다한 사무국 공무원들, 방문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도움을 주신 현지 가이드 및 통역사님들 그리고 연수기간동안 강북구의원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방문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11.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심 외 방문단 의원 일동

V. 참고자료

1. 네이버백과 (<http://naver.com>)

- 존 편스톤 엮음,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심산(서울: 2005)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행(2012.4) -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
학위논문(석사) : 싱가포르 도심부(Central Area) 경관 관리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리포트[세계의역사C형] 싱가포르관련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 - 출처: 해피캠퍼스
- 학술논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
DBpia 삼육대학교 외 82곳 참고문헌(55건)
- 리포트(신행정수도 및 신행정도시 해외 사례)(#01)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출처: 해피캠퍼스

2. 외교통사부 누리집

3.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누리집

4.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누리집

5. 말레이시아 관광청 누리집

6. 푸트라자야 시청, Planning and Development of Putrajaya)

7.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누리집

8. 방문시설 홍보자료 등